

신평로 |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565-8 ~ 대정읍 동일리 2009(약 3km)

추사로 | 추사 김정희



추사유배지

안성교차로에서 신평교차로로 이어지는 **추사로**는 제주의 유배인 추사 김정희를 기리는 제주추사관이 있는 길이다. 제주도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배지였다. 200여명이 넘는 제주의 유배인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추사 김정희이다. 조선시대 최고의 예술가로 꼽히는 그는 1840년 55세의 나이로 대정현에 유배를 와서 8년 3개월간 머물다 떠났다. 제주추사관에는 추사체와 세한도를 비롯해 유배시절 가족들에게 보냈던 편지, 김정희의 흉상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제주추사관 뒤에는 김정희가 머물던 유배지가 있다. 조선후기 최고의 인물로 꼽히는 추사가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가 머물렀던 곳은 한 평 남짓의 비좁은 방이다. 하지만 그는 이 좁은 초가집 방구석에서 추사체라는 최고의 글씨를 완성했고, 세한도를 그려냄으로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업적을 남겼다.

세한도는 김정희와 제자 이상적의 우정을 담고 있는 그림이다. 제주에 유배와서도 김정희의 독서와 학구열은 잦아들지 않았다. 역관이던 제자 이상적은 김정희가 원하는 귀한 책들을 청나라에서 구해 유배지까지 보내준다. 그 덕분에 김정희는 제주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학문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었다. 이런 이상적에게 김정희는 고마움의 표시로 <세한도>를 그려준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가 뒤늦게 시들을 안다’는 <세한도> 발문으로 제자의 변치 않는 마음에 추사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세한도>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다가 일제강점기 때 추사 연구가인 후지츠카 치카시에게 넘어간다. 그를 따라 일본으로 넘어갔던 <세한도>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손재형의 노력으로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된다. 추사의 국제적인 명성만큼이나 한·중·일을 두루 거치며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한 <세한도>는 국보 제180호로 지정되어 있다.

추사로38번길 | 수월이못

추사유배지 주변에서는 김정희와 관련된 흔적들을 만날 수 있다. 유배지에서 북쪽으로 **추사로38번길**을 따라 가면 수월이못이라는 꽤 큰 연못이 나온다. 이 연못은 옛날 수월이라

는 관기 때문에 생겼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 ‘수월이못’이라 부른다. 이곳에서는 김정희가 쓴 한시들을 돌에 새겨 전시하고 있다. 김정희는 유배생활의 적적함과 외로움을 시로 달랬다. 그의 시에는 유배생활 동안 느끼는 여러 감회가 나타난다. 김정희는 시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대정고을을 만나고, 제주의 자연을 만났다. 그에게 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만남의 장이었다. 길 주변의 감굴 또한 김정희에게는 새로운 체험이었다. 김정희는 서울에서도 보기 힘든 굴을 유배와서야 실컷 구경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김정희는 매화, 대나무, 국화 등은 어디서든 볼 수 있지만 굴만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고 굴의 지조와 덕을 칭송하며 자신이 지내던 곳을 ‘굴중옥’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수월이못

향교로 | 대정향교

향교로는 단산을 지나 대정향교로 향하는 길이다. 단산은 제주의 다른 오름이 봉긋 솟아오른 모습인 것과 달리 뾰족한 능선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 꺾이한 모습을 추사체와 연관시키기도 한다. 단산 아래 한적하게 자리잡은 대정향교는 1416년에 세워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서깊은 향교이다. 처음에는 대정현성 안에 있었다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김정희는 유배시절 제주의 선비들을 가르치며 많은 제자를 두었는데, 김정희가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전한다. 김정희는 대정향교 기숙사인 동재에 ‘의문당’이라는 현판 글씨를 써주기도 했다. 항상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진리를 찾으라는 의문당의 뜻처럼 그는 삶의 어려움을 집념의 정신으로 이겨내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곤 하였던지도 모른다.



대정향교

추사로247번길 | 정난주 마리아

정치적인 이유로 유배를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유배를 온 사람들도 있다. 정난주 마리아가 그런 경우이다. **추사로247번길**에는 정난주 마리아 묘가 있다. 다산 정약용의 조카인 정난주는 1801년 남편 황사영이 천주교 박해의 실정을 중국에 있는 선교사에게 알리려던 백서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유배된다. 그녀는 대정현 관노로 37년 간의 긴 유배생활을 견디다 1838년에 눈을 감는다. 그녀는 유배지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 백색의 순교자라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정난주의 묘는 순교자 묘역으로 단장되었고, 이후 천주교 성지로 조성되었다.

인성로/인안성로 | 인성리와 안성리

대정고을이라 부르는 이 일대는 여러 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길 이름에도 마을의 이름들이 반영되어 있다. **인성로**는 인성리(仁城里) 마을의 중심도로이다. 인성리에는 제주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방사탑이 있다. 제주의 마을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나거나 마을에 기가 허한 곳이 있을 때 방사탑을 쌓았다. 인성리에서도 마을의 액운을 막기 위해 단산 남쪽 알벵디라고 하는 곳에 방사탑을 쌓아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인성로와 이어지는 **인안성로**는 인성리와 안성리를 연결하는 길이다. 안성리(安城里)는 인성리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안성리에 있는 대정교회에는 제주출신 첫 목사인 이도종 목사의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이도종 목사는 일제강점기에 평양 신학교에 진학해 목사가 되었다. 그 후로 제주에 돌아와 여러 교회들을 설립하고 신앙의 씨앗을 뿌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3사건에 휩쓸려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후 교인들이 대정교회에 기념비를 세워 그의 업적을 기렸고, 지금 이곳은 제주 기독교의 성지로 인정받고 있다.

보성하로/구억중앙로 | 보성리와 구억리

보성하로는 보성리(保城里)의 아랫마을 길이다. 보성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대정에서 10년간 유배생활을 했던 동계 정온의 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정온은 광해군에게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인 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가 1614년 대정에 유배된다. 유배시절 정온은 독서를 많이 했는데, 대정현감이 그를 위해 서재를 지어줄 정도였다. 그 후 인조반정

이 일어나자 오랜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간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제주로 유배 보낸 광해군은 제주도에 유배되어 생을 마감한다.

중산간서로와 이어지는 **구억중앙로**는 구억리의 중심도로이다. 구억리(九億里)에는 예전에 제주옹기를 구울 때 사용했던 가마터인 노랑굴과 검은굴이 남아있다. 제주에서는 다른 곳과 달리 돌가마에 옹기를 구워냈다. 1100℃가 넘는 온도에서 구워낸 옹기의 색이 노란색을 띠는 곳을 노랑굴이라 하고, 900℃ 내외에서 검은 색을 띠게 구워내는 곳을 검은굴이라 한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옹기를 만드는 일에 종사를 했었지만 옹기가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옹기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지금은 옹기를 만드는데 최고의 솜씨를 가진 사람을 옹기장으로 선정해 옛 전통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신평로 | 신평리

신평로는 신평리(新坪里)의 마을안길이다. 과거에 웃날외라고 불리던 신평리에도 제주옹기를 구웠던 가마터인 노랑굴이 남아있다. 신평로 남쪽에는 원형 오름인 모슬봉이 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에 봉수대가 있어서 주변의 오름과 해안가의 연대와 신호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현재 신평리에는 무릉리와 신평리, 보성리, 구억리에 걸쳐 있는 곳자왓을 보호하기 위해 곳자왓 도립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제주의 독특한 숲을 보호하고, 자연을 체험하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